딸기 생산 위한 꽃눈 분화 검경 실시

화순군, 적정 시기 안내 통해 안정적인 수확

명품 딸기 생산 위한 꽃눈 분화 검사실 운영

화순군은 명품 딸기 생산을 위한 꽃눈 분화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딸기는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과일로 고소득을 위해서는 가장 비싼 시기(11월~1월까지)에 일찍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딸기는 모종이 꽃눈 분화된 상태에서 정식해야 11월부터 수확할 수 있고, 5월까지 안정적인 생산으로 다수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꽃눈이 분화하지 않은 모종을 정식하면, 첫 꽃이 늦게 피고 딸기 출하가 지연돼 농가 소득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에 화순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지역의 딸기 재배 농가(31농가, 재배면적 15.6ha)를 대상으로 딸기 꽃눈 분화 검경(현미경으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정식 시기를 지도하고 있다.

검경 희망 농가는 딸기 모종을 가지고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긴 장마기와 집중호우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8월 중하순에 높은 온도로 꽃눈 분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꽃눈 분화 검사 결과 평년(8월 30일~9월 8일 정식)보다 5~7일 가량 늦게 꽃눈이 분화되고 있어 농가들은 9월 8일 이후에 정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원예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호응'

올해 44개 농가 선정… 전문업체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

장성군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총 88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심의회 회의를 거쳐 44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지원을 추진 중이다.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수확기에 작물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정한 가격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장성군은 영세 농업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하우스는 600평(1983㎡)에서 300평(991㎡)으로, 과수농가는 1500평(4958㎡)에서 900평(2975㎡)으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한 작년부터 저온저장고 규모 기준 30평(99㎡) 지원을 없애고 5평(16㎡) 혼합(냉동, 냉장) 항목을 신설해 참여 농가를 늘렸다.

한편,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도 내실을 기했다. 올해 군은 서면평가 등 공정한 공모과정을 거쳐 8개 전문업체를 선정했다. 부실공사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저온저장고는 원예농작물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라며 "내년도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의 수요를 조기에 파악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곡성군이 9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다. 장사는 물론 생계까지 막막해진 시장상인들을 위해 곡성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12월까지 사용료 감면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전통시장(곡성기차마을, 석곡, 옥과) 이용 상인들이다.

특히 점포 사용료를 포함해 저온저장고 등 모든 시설 사용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료 감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나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기준 180%이하 난임 진단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술비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에 걸쳐 각각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및 진단서 등 구비서류 첨부, 배우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문자알림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결정통지서는 정부24에서 출력 후 시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식 나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보건소 방문이 불편했던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부부 생활에 있어 행복 그 자체인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339-2128·2174)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축사 미생물배양실 건립 '본격화'

담양군, 11월 완공 목표…사업비 25억원 투입

담양군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및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25억원(국비 12.5억 원, 군비 12.5억 원)을 투입해 건립중인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미생물배양실은 1층에는 미생물배양실과 저온저장고, 사무실이, 2층에는 종균실험실, 친환경축산관리실, 조사료분석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5개의 탱크에서 7종의 미생물을 번갈아 생산하던 기존의 배양실과 달리 대량배양기 7대에 한 종류의 미생물만을 배양하기 때문에 순도 높은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마을 인접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악취저감 미생물 뿐만아니라 병충해방제, 가축면역력 증강, 작물생육 증진을 위한 친환경미생물 7종을 1리터 기준 3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 "향긋한 멜론 1년 내내 즐기세요"

곡성멜론 활용 발효차 · 발효식초 신제품 첫 출시

곡성군의 대표적 소득작목인 곡성멜론을 활용한 발효차와 발효식차가 출시됐다.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농업회사법인 ㈜초정의 발효명장 정인숙 대표와 함께 '곡성멜론 발효차'와 '곡성멜론 발효식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초정은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에서 2019년 추진한 곡성멜론 레시피 개발 사업의 참여했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유명 셰프 강레오 씨의 지도와 기존 발효식초 개발 경험을 토대로 멜론향이 살아있는 새콤달콤한 발효식초를 개발에 착수했다. 발효식초 개발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곡성멜론 발효차도 함께 출시할 수 있었다.

분말 형태로 개발된 발효차는 냉온수와 우유에 잘 녹고 달콤한 멜론향이 살아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하기 좋다.

한편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곡성멜론의 소비 증진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가공 상품 개발 및 유통망 확대에 힘쓰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와 곡성멜론 스무디 등을 개발해 올 6월에 전국매장 출시했고, 지역 소상공인과 멜론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기도 했다.

곡성=김광휘 기자